



지역 최고의 유치원으로 꼽히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평택 명법사에서 어린이들이 컴퓨터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개신교 강세속 불교 '대중화'

- 평택** 신행·복지·문화분야서 눈부신 활약
- 안성** 명찰의 고장, 발길 닿는 곳곳에 성보
- 오산** 사찰 10여곳...사암련 활동 '이미지 UP'

차 구국구세법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불교 대중화와 사회화에 나섰다. 또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청원사 등은 전통사찰이자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안성불교 알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오산 인구 13만명의 오산은 시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이런 가운데에서 10여 곳 남짓한 오산의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가며 불교를 지켜가고 있다. 불교가 다소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찰 수와 개신교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현재와 같이 나름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다.

대각포교원은 16년 동안 어린이 법회를 진행, 새싹불자를 키우면서 오산불교의 미래를 가꾸고 있다. 이제는 어린이법회 출신 아이들이 성장해 법회 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선불사 역시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회가 초·중·고·대학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으며, 사회 재난 때에도 빠뜨리지 않고 성금을 내놓는다. 또 오산사암련회도 9년째 부처님오신날 쌀 20가마를 오산시에 기탁,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도심포교당인 각황사는 성지순례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불교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경기 평택·안성·오산

평택 평택은 인구 36만의 도농복합도시다.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개신교세가 강해진다. 유종인구가 많아 불심이 약한 편이다. 무속신앙도 뿌리가 깊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 탓에 사찰들 간의 왕래도 쉽지 않다. 이래저래 평택 불교는 쉽지 않은 여건을 안고 있다.

그런 여건속에서도 평택 불교를 대표하는 명법사는 신행·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30개 팀으로 구성된 신도조직과

대학생·일반·젊은 기혼자로 구성된 3개의 청년회와 어린이회, 학생회 역시 평택 불교의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수도사는 평택 불교의 지평을 바꿀 기대주로 꼽힌다. 사찰음식간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수도사를 평택시가 원효대사 오도성지로 성역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어 머지 않아 평택 불교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비사와 만기사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안성 안성에는 이름 있는 절이 많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장사, 고려시대 수행도량으로 이름을 떨쳤던 석남사, 남사당패가 머물렀다는 청룡사, 종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으로 유명한 청원사, 천년고찰 운수암, 수행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보현도량 도피안사 등.

많은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안성 불교의 자랑거리. 절장사 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과 죽산리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석남사 영산전(보물 제82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0점이나 되고, 기술리석불입상과 청원사칠층석탑 등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기념물·문화재자료 만도 30여 점이나 된다.

유기호 유명한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낳은 곳 안성. 배와 포도, 인삼으로도 유명한 안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는 바로 '불교'다. 이름 있는 절과 성보문화재가 많은데다, 사찰들도 나름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 정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여 사찰들이 종단 구분없이 모인 사암련회회는 지역 현안에 공동대처하는 등 불교 위상 강화에 동참, 부처님오신날 문화축제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다.

사찰로는 도피안사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올해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부모은중경탑 건립, 효사상 전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하면 수식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효'다. 인성 회복과 바른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효'이며, 흔탁한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효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30년전 용주사 주지 때 경내에 부모은중경탑을 세웠으며, 석남사에도 같은 탑을 세웠다.

1968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도수련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신도들과 격의없이 신행 이끌어

대운 스님 (오산 선불사 주지·본원종 중앙총회회장)

대운 스님은 오산에서 30년간 활동해 온 오산불교의 터줏대감이다. 신도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활발한 신행을 이끌어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모든 공을 신도회장인 신장호 거사와 신도들에게 돌린다. 그런 대운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는 두텁다. 신도들과 함께 불우이웃 돕기 및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오산불교 발전과 불교 미래를 위해서는 새싹 포교가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불교유치원에 뜻을 두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 원력

원경 스님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 스님은 13년간 선방에서 수행하다 1995년 만기사 주지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포교에 뛰어들었다. '사회복지 없는 불교 미래는 없다'는 소신이 확고하며, 이를 위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10년 전 연꽃어린이집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도 뜻을 두고 있다.

1985년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했으며, 1965년 전국제천 검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오산불교 중심...종단 화합 일귀

정호 스님 (오산 대각포교원 주지·오산사암련 회장)

'명함'도 못 내밀던 오산 불교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종교단체로 자리잡기까지는 17년 간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호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0년 넘게 오산사암련 회장을 맡아 교육·포교·복지·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암련 회장 외에 현재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오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화성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전통사찰음식 강좌 인기몰이

적문 스님 (평택 수도사 주지)

2년 전 수도사 주지로 취임, 전통사찰음식학습체험관을 세우고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를 운영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수도사를 평택에서 주목받는 사찰로 바꾸어놓았다.

현재 적문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사찰음식 강좌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13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하며 대중화에 기여했다. 사찰음식을 해외에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 마련 소외계층 돌봐

순형 스님 (평택 명법사 주지)

명법사가 평택불교의 대명사로 불리기까지는 30년 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포교에 매진해 온 순형 스님의 끈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해내는 강한 추진력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명법사를 교육·포교·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복지활동에 더욱 주력, 현재 미혼모 수용시설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내년 중 양로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자비동산 세우고 새싹불자 키위

법성 스님 (평택 자비사 주지)

폐사에 가까운 자비사를 중창하고 30년 간 포교에 매달리며 평택불교 발전에 앞장섰다. 지금은 97년 설립한 어린이집 '자비동산'에 매달려 새싹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법성 스님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불우한 아이들과 청소년 160여 명을 키워왔으며, 지역 포교의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총무원장상과 경기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조계종 12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단일계단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광덕 스님 뜻 이어 불교 대중화 앞장

송암 스님 (안성 도피안사 주지)

불광운동을 통해 근대한 국불교 대중포교의 기틀을 다진 광덕 스님의 상좌로, 은사스님의 뜻을 이어 교육·포교·수행·사회운동·출판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다.

송암 스님은 날카로운 시각·폭넓은 식견·열린 마인드로 도피안사를 안성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매김시켰다. 특히 독서운동, 어린이 천문학교 실, 구국구세법회 등 새로운 아이템을 통한 포교 활동으로 안성불교를 넘어 한국 불교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승 창립 주도, 종단개혁 박차

해월 스님 (안성 생미륵사 주지·법성종 총무원장)

안성 불교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바로 해월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 13년 전 사암련 총무부장을 맡아 지역의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화합을 이끌어 냈다.

사암련회회장 도광 스님과 함께 경승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지역 포교활동에 뛰어들었다. 하루도 좌선을 거르지 않는 등 수행자로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법성종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우·육법공양 등 체험포교 나서

보광 스님 (평택 법장사 주지)

평택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주로 꼽히는 젊은 스님. 교육, 포교, 복지,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장사를 평택의 포교 1번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발우공양 육법공양 등 모든 의식을 신도들이 직접 해보고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불교를 알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 중이다.

봉원사에서 3년간 법배를 배우고, 현재 동국대에서 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음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단 시대 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단(三淨丹)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양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도록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단(三淨丹)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선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수양원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항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 767-0036